

뜨거운 한류와 오래된 미래

안영훈

교수 · 국어국문학



한류(韓流)가 뜨겁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 에미상을 6개나 수상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보다 앞서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영화제를 휩쓸었다. 세계 유수 차트의 정상을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은 더 이상 국적으로 가둘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들을 보면 문화에 국경이 없다는 말이 실감된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에 늘 ‘비영어권임에도’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이 말은 언어(권)가 얼마나 강고하게 세계를 가르고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봉준호 감독은 자막 ‘인치의 장벽’은 무너질 것이며 온라인 환경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파했다. ‘한류’가 ‘한국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이라 한다면, 음악과 영상이 주를 이루는 이른바 문화콘텐츠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고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한류 열풍 속에서 언어가 주업인 문학은 어떠한가. 문학도 다양한 플랫폼과 결합하며 변신을 꾀하고 있고 일부 콘텐츠의 영토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 방식의 쓰기와 읽기도 살아있다. 심지어는 연필을 꺾어서 원고지를 메우는 육필의 노동을 발발이로 고수하고, ‘꽃이 피었다’와 ‘꽃은 피었다’ 사이에서 조사 하나가 전혀 다른 세계를 진술한다며 담배 한 갑을 태운 작가(김훈, 〈칼의 노래〉)도 있다. 낭송의 향유도 여전하다. 인터넷과 사이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옛 방식으로 언어를 읽고 쓰는 행위는 소멸하지 않았다.

한류 전문가들은 1997년 중화권에서 한국 드라마의 유행이 시작된 것이 한류 1.0이고, 이후 권역과 장르를 확대하며 현재는 3.0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2010년대 초부터 잡는 한류 3.0은 대상이 기존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한글, 한식, 한복 그리고 관광산업과 관련 제조업까지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장된 점이 특징이라고 한다. 그 사이 유행한 접두어 ‘K-’를 붙이는 습관에



한국문학이 제대로 된 번역을 통해서 세계와 만나고 작품성도 인정받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사진=언스플래쉬)

“

인터넷과 사이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옛 방식으로 언어를 읽고 쓰는 행위는 소멸하지 않았다. 길은 오래된 미래에도 있다.

”

따라 ‘한국문화’도 ‘K컬처’로 창씨개명(創氏改名)하였다. 문학이 ‘K컬처’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중문화화하는 길도 있지만, 한편으로 온전히 문학 작품으로서 세계인과 만나는 길도 있다. 그간 한국문학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까지는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번역을 통한 소통을 꾸준히 이어왔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간행한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해외출간도서 1527〉을 보면,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11종 1527권의 도서가 세상 빛을 보았다. 해설에 따르면, 한국문학 해외 번역 출판은 크게 태동기(1892~1979), 준비기(1980~1999), 도약기(2000년 이후)로 나눈다. 한국문학 최초의 번역은 1892년 프랑스 파리에 유학생 홍종우가 프랑스 작가 J. H. 로니와 협력하여 고소설 〈춘향전〉을 ‘향기로운 봄(Printemps Parfum)’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것이다. 이후 1970년대까지는 〈구운몽〉, 〈심청전〉 등 고전문학이 주를 이루었고, 1980년 황순원의 〈별〉

이 홍콩에서 영어로 출판된 것을 계기로 정부 지원을 받아 현대문학 번역 출판이 활발해졌다.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한 이후 세계 출판계에서 한국문학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평가도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현재는 웬만한 작품들은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해외 수상도 대폭 늘었다.

한국문학 해외 번역의 성장은 점차 노벨문학상 수상의 기대치도 높이고 있다. 그동안 유독 한국은 다른 분야와 달리 노벨문학상과는 인연이 멀었다. 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문학이 제대로 된 번역을 통해서 세계와 만나고 작품성도 인정받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경희대학교 영문과에서 평생을 가르치고 한국문학 번역에 전 생애를 바친 케빈 오록(Kevin O’Rourke, 한국명 오록, 1940~2020) 교수는 고려시대 이규보(1168~1241)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한 인터뷰에서는 이규보의 시 〈정중월(井中月)〉을 직접 읽고, 현대에 태어

났더라면 충분히 ‘노벨상감’이라고 했다.

이규보 문학에 대한 서양인 번역가의 애정은 리처드 러트(Richard Rutt, 한국명 노대영, 1925~2011),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 한국명 기일, 1863~1937)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니아 계보를 형성할 정도이다. 대중에 널리 알려지는 않았지만 일찍이 썩든 ‘문학 한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허난설헌(1563~1589)과 같이 중국과 일본에서 시집이 간행된 사례가 있다. 허난설헌은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한스럽게 여기다 요절했지만 그의 시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애호되었다. 그의 아우 허균(1569~1618) 또한 유교 사회의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지만 그의 문장은 시대를 앞선 성과로 현재까지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하버드대에서 발행하는 영문 한국 문예지 〈진달래〉에 〈홍길동전〉 번역이 실렸다가 2019년 최초로 펍클 클래식시리즈로 출간된 것도 문학 한류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길은 오래된 미래에도 있다.